



만만한 기부 출범 2주년

#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수상작 소개

.....

주최 :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 대학신문사

## 목차

### 발간사

이효원 03

### 심사평

황선엽 07

### 수상작 소개

최 우 수 상 꿈을 지켜준 장학금

백현정 13

우 수 상 장학금과 함께 받은 ‘믿음’에 대해

민자혜 17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장 윤 23

장 려 상 “서울대에 합격해버렸다.... 어떡하지?”

마츠이 아키코 29

말하는 대로

박선우 35

A Dream and a Family's Sacrifice

Inna Yusnila 41

제2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이현수 51

글로벌 ‘스누인’을 다짐하며

한세환 57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 발간사

## 발간사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대학신문과 공동주최로 올해 두 번째, 장학금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문턱에서 시작된 수기공모 접수가, 이제 추수를 끝내고 여유를 가지며 들판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처럼 재단도 수상자 선정을 끝내고 마지막 시상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지난 4년 동안 진행했던 주요한 장학금 모금사업인 ‘선한 인재 장학금’은 서울대 학생들 중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급하는 학비장학금 외 월 30만원의 기본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의 나이를 짐작할 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에 학교에서 개인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지켜보는 저로서도 기쁩니다.

다른 모금사업들도 많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수기 공모전 행사를 기획하면서 수혜자인 장학생뿐만 아니라 기부자들도 그리고 일반인들도 선정된 수기를 보며 각자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여 편 이상의 글들이 왔고, 그 글들은 수혜자인

학생과 기부자등 다양한 분들이 공모전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30년 전 교사의 꿈을 지켜준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고 싶어서 기부를 하고 있는 백현정 학부모님, 육아로 바쁘지만 학문후속세대로 장학금을 받기에 그 믿음을 지키고자 연구에 매진하는 박사과정 민자혜씨, 인문학의 즐거움을 느끼며 학예연구사의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장운 학생, 기부를 통해 가족의 행복을 얻게 되었다는 이현수 동문, 타국에서 유학과 어려움이 많지만 버티고 설 수 있는 꿈이 되는 장학금이라고 말하는 마츠이 아키코 유학생,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해보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박선우 학생, 어릴 적 하얀 눈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여기까지 오게 했고, 학업을 하며 자신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까지도 변화가 생겨 기쁘다는 Inna 유학생, 자신이 원하는 의학 분야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 좋고 장학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공모전에 참가했다는 한세환 유학생, 그 외에도 일일이 언급하진 못했지만 이 외에도 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부는 자신에게는 소중한 삶의 가치를 표현하는 일이며, 타인에게는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 이라 생각되었고, 재단이 추진하는 모금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부담없이 편안하게 수기를 읽었지만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개인의 소중한 글들을 객관적 기준을

세워 평가해 주신 황선엽 심사위원장님과 신종호 대학신문 주간님을  
포함한 심사위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11월

관악에서 이효원

---

**이 효 원**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상임이사  
기획처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 심사평

## 심사평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학금 수기공모전의 심사를 맡게 되었다. 작년에는 이런 종류의 심사를 맡은 것이 처음이어서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수월하게 심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역시 심사는 어려웠다. 각자의 개성이 번득이는 글들에 대해, 아무리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세워 평가한다 하더라도 심사자의 주관이 작용하는 일을 막기는 어렵다. 심사위원마다 구체적인 채점 방식은 다르겠지만 본 심사위원은 우선 글들을 모두 정독하여 가채점을 한 후 한 번 더 읽으면서 순위를 매겨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후 5명의 심사위원이 모여서 각자 채점한 결과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내 기준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자 다른 시각을 가진 5명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최소한 5명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니 그것으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였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채점 기준은 표현성(얼마나 효과적으로 글을 구성하고 표현하였는지), 독창성(이런 류의 글들이 대개 그러하듯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진부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잘 드러나는 참신한 내용인지), 진정성(실제의 체험과 체험을 통한 사고가



얼마나 깊이 있게 나타나 있는지), 주제적합성(‘장학금 수기공모’라는 주제에 얼마나 적합한 글인지) 등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세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논어에 ‘문질彬彬(文質彬彬)’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것이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글로 표현되는 순간, 언어적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표현이라도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적이지 못하다면 그 역시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즉 ‘문질彬彬(文質彬彬)’이란 글의 외형과 내용이 모두 갖추어져야 함을 강조한 말이니 모든 글을 평가할 때 이 두 요소에 대한 평가는 항상 기본이 된다. 앞의 2가지 기준은 이러한 일반적 기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 외에 ‘수기공모전’의 특성상 두 가지 요소가 더 고려되었다. ‘자기의 생활이나 체험을 직접 쓴 기록’이라는 ‘수기(手記)’의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자기의 체험이 얼마나 글 속에 녹아 있고 그 체험에 대한 성찰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것을 세 번째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모전’이므로 이 공모전의 목적과 공모전에서 제시한 주제에 얼마나 적합한 글 인지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이번에 응모된 글은 모두 110여 편에 이른다.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학생의 글이 대다수였지만 장학금 기부자들의 글도 생각보다 많은 편이었다. 학생 역시 내국인이 다수였으나 외국인 유학생도 상당수가 응모를 하였다. 우선 응모된 전체 글 가운데 24편을 뽑아 5명의 심사위원이 정밀 심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하였다. 개별 심사에서 많은 고민

을 하고 시간을 들였던 것에 비해 심사위원들이 모여 종합 심사를 할 때에는 의외로 의견들이 쉽게 모아져 수상작 선정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다. 최우수상 작품은 미림정보과학고등학교의 교사이신 백현정 씨의 글이 선정이 되었다. 예년과 달리 학부모로서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분의 작품이 최우수상을 받게 된 점에서 이번 공모전의 의의를 더욱 되새겨 볼 수 있게 되었기에 좋은 글을 써 주신 수상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우수상 작품으로는 농생명과학대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민자혜 씨와 사범대 역사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운 씨의 글이 선정되었다. 딱히 안배한 것도 아닌데 장학금 수혜자 중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우수상을 나누어 받게 되었다. 장려상은 한세환, 마츠이 아키코, 이현수, 박선우, 이나 씨에게 돌아갔는데 외국인이 3명이나 되어서 심사위원들이 적잖이 놀랐다. 영어로 쓴 이나 씨의 글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세환, 마츠이 아키코 씨의 글에 나타난 한국어 구사 수준은 일반적인 한국인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가산점을 준 것도 아닌데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처지에 있는 여러 분들이 고르게 수상을 하게 되어 어느 때보다 공모전의 의의가 더 깊이 느껴지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수상자들의 수기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장학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황 선 엽 장학금 수기 공모전 심사위원장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 — 수상작 소개

최 우 수 상

**꿈을 지켜준 장학금**

백 현 정  
선한 인재 장학금 기부자, 인문대학 국사학과 재학생 학부모

## 꿈을 지켜준 장학금

1980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3부터 4살 꼬맹이까지 4자녀의 학업과 생활을 위해 어머니는 하숙을 시작하셨습니다. 방이 4개인 집에서 방 2개는 하숙을 위해 사용했고, 고3이던 언니가 방을 혼자 쓰고 나머지 네 식구는 안방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내 방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4형제를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형제끼리 서로 양보하고 보듬으며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학비를 지원받거나 장학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큰언니는 야간대학에 진학해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었고, 고등학생 둘째 언니는 기울어진 가세로 인해 하고 싶었던 미술공부를 포기하였던 터라, 셋째딸인 저는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했음에도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꿈이었지만 어머니는 서울여상에 입학해 은행원이 되어 집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중 3때 어머니의 말씀을 처음 거스른 것 같습니다. 입시 상담을 위해 담임선생님을 만났던 어머니는 그 날 저녁 조용히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대학에 그렇게 가고 싶니?’ ‘네. 서울여상에 가면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짧게 쉬시고는

‘그러면 인문계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아니면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해야 하니까’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시내 사립 명문고등학교에 배정을 받게 되었는데 차비며, 학비 등 고등학교 생활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과외도 가끔 받고 부족한 과목은 학원도 다녔지만 저는 학교 교실에 묵묵히 앉아 공부에 전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기별로 학비를 내야 하는 때가 오면 등록금 고지서를 내놓기가 죄송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괜히 인문계에 진학을 했나 하는 후회도 들고 조금씩 자신감을 잃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2 때 한부모 가정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는 장학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담임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써 주셨습니다. 전국에서 10여 명의 고등학생이 지원을 받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이 알려지면 제가 자존심 상해 할까봐 담임선생님께서 항상 신경써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학비 걱정이 없어지자, 우수한 학업 성적을 잘 유지했고, 2년간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비 걱정에서 벗어나 힘드신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교사라는 제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어서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제가 그렇게도 원하던 교사에 임용되던 해.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에 임용되어 첫 월급을 받고,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셨던 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형제, 그리고 고

등학교 때 받았던 장학금과 담임선생님...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만큼 저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적은 돈이지만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장학금 기부,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를 시작했고, 20년 이상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하면서 생활비를 걱정하는 자녀의 학우들을 위한 기부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적은 돈이지만 또 다른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기부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금액입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으로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제 적은 기부가 다시 누군가의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장학금이 된다면 제 힘이 닿는 데까지 기부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학교 교정을 걸으며 고등학교 때를 돌아봅니다. 여드름 가득한 소녀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소녀를 이해해주신 담임선생님과 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장학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누군가 제 꿈을 지켜주었듯이, 저도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꿈을 간직한 학생들이 그 꿈을 잃지 않고 또 다른 꿈을 전하는 '작지만 큰 꿈'을 꾸며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 수 상

## 장학금과 함께 받은 ‘믿음’에 대해

민 자 혜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재학생 (박사과정)



## 장학금과 함께 받은 ‘믿음’에 대해

어느덧 박사과정 5년차에 접어드는 가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학교와 오랜만에 접속하는 스누 메일에서 장학금 수혜에 대한 공모전을 보고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 몇 자 적어봅니다.

학부를 8학기 만에 졸업하고 곧바로 석사를 마치고 비정규직이었지만 나름대로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연구원에 입사하던 때만 해도 저는 참 빠르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구원 재직기간 내내 가장 나이 어린 직원이었지만 나름의 성과를 내며 주위 분들의 인정을 받고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취감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2년차에 오랜 연인과 27세의 나이에 결혼하던 때 까지도, 저는 ‘빠른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은 보람차긴 했지만 공공기관 정규화의 제도적 불안정과 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인사제도 탓에 좀처럼 정규직 연구원으로서의 승진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 3년차가 되던 어느 날, 밤샘근무 후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일출을 보며,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비정규직 연구원으로서의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는 안정된 마음으로 2세 계획을 세울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퇴사 후 마음속으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박사과정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4년 여 간 떠나있었던 관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저는 ‘빠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이 모두 한참 나이가 나는 선배들이었던 석사과정 때와 달리, 대다수 학생들은 저와 동년배이거나 나이어린 후배들이 되어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다른 길을 둘러 박사과정에 진학한 친구들과 비슷한 ‘보통의’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들으며 코스웍을 해 나가던 중 2015년에 기초학문 후속세대 장학생 선발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초학문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선발한다는 말에 가슴이 뛰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분야에 대해 논문계획서의 틀 안에서 치열한 고민을 담아 작성하였고, 교수님께서도 학업에 대한 제 의지를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추천서를 정성껏 작성해주셔서 마침내 기초학문후속세대 박사과정 수학지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중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만큼 지원금액이 높기도 하였지만, 프로젝트와 같은 외부적인 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원 퇴사 이후 점점 자신감을 상실해가던 차에, 내가 ‘기초학문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라고 인정받은 것만 같아서, 정말 기뻐던 기억이 납니다. 장학금 덕분에 코스웍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덧붙여 의무사항이었던 교양강의 조교 활동도 수강하는 학부생 친구들과 어울려 무척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문후속세대 장학금을 받고 있던 박사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가 제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원래

는 출산 전까지 학교를 다니며 논문 준비와 병행하려고 했었지만, 그러기에는 입덧과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너무도 힘들어서, 결국 휴학을 하고 아기를 건강히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 힘을 쏟기로 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도 누구보다 큰 축하를 해주시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교를 쉬게 되는 상황에 대해 전혀 부담 갖지 않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출산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육아는 더더욱 고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기 기저귀를 갈고 수유를 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선 계속 학교에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도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육아에 전념해주길 바라는 남편의 희망과 아기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가라는 치열한 고민이 거듭되어, 출산 전에는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던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택할까 하는 생각도 심각하게 고려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를 고민하던 저에게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지 않느냐고 말렸지만, 그때 저를 돌아세운 건 무엇보다 ‘학문후속세대’ 장학금이었습니다. 물론 전업주부로서도 가정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크겠지만, 기초학문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로서 저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수여해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사명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 여건이 쉽지 않더라도 길이 없지 않은 한 학자로서의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아기의 두 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마는 눈뜨자마자

학교에 가기 때문에 아침엔 아빠와 등원했다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고, 오후 늦게 엄마와 하원해서 또 재미있게 놀입니다. 복학한 지 두 학기 쯤 아직도 아침 출근길에 정문을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고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는커녕 적응하느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이제는 ‘빠른 사람’이 아니라, 연구실에서 나이순으로 보면 거의 맨 앞에 있는 ‘늦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믿어준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 수 상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장 윤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재학생 (학부생)

##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며 사귀 친구들이 종종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다. 아니, 어쩌면 우스갯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여섯 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가람미술관에서 그리스로마신 화전을 본 이후로 박물관에서 근무하며 언제나 유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문학의 즐거움을 전달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 왔다. 우리 학교 역사교육과에 입학하고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며 마음껏 공부하는 시간이 행복해서, 관정도서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책을 보는 날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매 학기 장학금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전시실 등 여러 박물관에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교수님들께 글이 형편없다고 야단을 맞아 가면서 동기들과 공모전들을 준비하여 작은 연구나마 인정을 받을 때마다 좋은 학예사가 될 길에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아 마냥 즐거웠다.

그래서 지난 학기, 동기들이 하나 둘 금융공기업을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해맑게 빙켈만의 논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외부장학금 두 개에 지원을 해 놓고, 친구들을 설

득해 공모전 두 개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결과가 좋으리라고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공모전은 예선부터 떨어졌고, 장학금은 면접에서 탈락한 것이다. 그 때부터 나의 자신감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훗날 좋은 학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한 것들을 죄다 떨어지는 걸까 싶은 마음이 컸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내가 문과 중의 문과라는 사실이 나에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한 것이라는 조금 비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연구공모전이며 장학금 선정 대상들이 죄다 이과생들이었던 것이다. 그들 중에서도 내가 뛰어나고 열심히 했으면 선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동시에 나는 그 바늘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 인문학도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만 같았다.

이런 고민은 나에게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아주 어린 시절 박물관에서 일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한 이후로 중고등학생 시절 내내 진로희망란에는 ‘학예연구사’라는 글씨가 반듯하게 쓰여 있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네가 이제와서 진로고민을 하다니’, 하면서 아주 황당해 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져본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 와중에 교수님 한 분은 학예사는 교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직업일 뿐이라고, 네가 그렇게 학예사가 되고 싶어하는 게 영 한심해 보인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오월 쯤 나는 적당히 로스쿨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기약없고 방대한 공부를 할 자신이 그

리고 잘 할 자신이 없었다. 미술사는 일반 역사가 아니라 철학과 미학이 계속해서 섞여들어가는 학문이다. 또한 미술사라는 과목 자체가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 아니고, 선행연구가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까지 아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아득해졌다. 로스쿨에 가면 한정된 것들을 몇 년만 공부하면 자격증이 나올거야. 그러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부모님께 용돈을 듬뿍 드리면서 살 수 있겠지.

그리고 법학적성시험 책을 사려고 학생회관 서점에 친구와 가던 어느 저녁 친구가 내 눈치를 보면서 물었다.

“언니, 다음 학기부터 코어장학금 신청할 수 있잖아, 할 거지?”

한동안 잊고 있던 장학금이었다. 그 장학금은 인문대학 대학원을 간다고 서약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었다. 서약을 파기하면, 받은 장학금을 그대로 돌려내야 했다. 나는 거의 한 달을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 이 장학금은 여태까지 받아 왔던 장학금과는 달리 내 미래를 결정하는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신청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나를 보며, 부모님은 아주 호탕하게 웃으셨다. 너 어차피 로스쿨 가고 싶어서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 하고 싶은 공부 하려고 재수까지 해 가며 이 학교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아빠는, “네가 용돈 걱정을 해야 할 만큼 돈이 없는 건 아니란다.”라며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렴.”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렇게 나는 이번 학기에 문과라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입학 후 어느 학기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지난 학기까지는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적당히 프랑스어를 공부했는데, 이제는 박사



학위를 파리 4대학에서 받고 싶고 기메 박물관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서 매일같이 프랑스어 라디오를 듣는다. 박물관 시스템을 선도하는 프랑스이니 그곳에서의 공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미술사학과 수업에 비해 재미없게 듣던 역사교육과의 수업도, 교양인들의 휴식공간을 넘어 대중의 교육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한다. 같은 과 석사 언니와 인문대학의 친구들을 설득하여 새로운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고, 해외 논문을 읽는 데 막힘이 없도록 동기들과 영어 스터디를 꾸렸다.

내가 받고 있는 코어장학금은 이번 학기로 끝이 난다. 인문대생만을 위한 장학금이 다시 생길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이번 장학금은 단순한 돈을 넘어, 내게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불어 넣어 준 장학금이었다. ‘진리는 나의 빛’이 아니라 ‘진리는 나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다시 생겼다. 평상시에는 문송한(문과라서 죄송한) 인문대학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마음 편히 공부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가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동시에 일반 대중에게 인문학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알리라는 뜻일 것이다. 학예연구사라는 일은 그 둘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학예연구사가 될 생각에 오늘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공부한다.

“문과라서 감사합니다!”

장 려 상

“서울대에 합격해버렸다… 어떡하지?”

마츠이 아키코

인문대학 미학과 재학생 (석사과정)

## “서울대에 합격해버렸다… 어떡하지?”

“서울대에 합격해버렸다… 어떡하지?”

이것이 처음에 대학원 합격 결과를 봤을 때의 내 마음이었다.

작년 나는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는 꿈을 위해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교에서 열리는 학예사 자격증 취득 과정 수업을 이수하고 있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공부를 할수록 꿈에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예술에 대한 관심은 커져만 갔다. 그렇게 더 공부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자마자 나는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관한 글을 쓴 교수님이 계시는 서울대학교에 입학지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원 합격 결과에 기쁜 것도 잠시, 경제적인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몇 년 후면 서른이 되는 어른이기에 부모님께 학비를 내 달라고 부탁할 용기는 없었다. 이미 그 당시에 다니던 자격증 과정 역시 스스로 학비를 해결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본국 학생 대상의 장학금은 원금을 상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높은 이자가 책정되어 있어 ‘빚’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학금(奨学金)’을 지칭하는 한자는 일본과 한국이 동일하지만, 한국과 달리 일본의 장학금은 추후에 상환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인이 된

젊은이들이 장학금을 상환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결국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장학금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인데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으로 나는 모국에서의 진학 보다는 마음껏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있는 이웃나라에서의 진학을 생각한 것이다.

내가 서울대학교 합격 소식을 접했을 때가 바로 이러한 학비 걱정이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던 때였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대학원에 진학하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합격 결과를 들었을 때는 장학금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유학을 갈 수 있다는 기쁨보다 학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앞섰다. 합격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나와 마찬가지로에 장학금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부모님께 나의 계획을 설명했고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에게도 PPT를 작성해 보여주면서 나의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토록 기다리던 장학금 신청 결과가 나온 것은 올해 1월 중순이었다. SNU Global Scholarship의 수혜자로 선정되어 1년간 학비가 면제된다는 소식에 학비를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유학생생활 첫 학기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 환경이 다른 외국에서 혼자 외롭게 산다는 것, 생각보다 수업에 따라가기가 너무도 힘들다는 것, 게다가 유학을 응원해주던 남자친구와의 이별까지, 나의 첫 학기는 정말 엉망이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재검이

라고 나올 정도로 몸 상태도 나빴다. 매일 울면서 셔틀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집에서는 또 눈물을 참으면서 과제를 준비하고 수업의 예습복습을 하는 생활의 반복만이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1학기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을 경우,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이 끊긴다는 것을. 여러 것들을 버리고 여기로 유학 왔는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기 편한 모국을 떠났는데 계속 이 곳에서 공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안된다고. 너무 힘든 중에서도 내 마음 속에 있던 것은 분명 이러한 의지와 욕심이었다.

학기를 끝내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맞이한 방학 중에 나온 1학기 성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서 나는 약간의 놀라움을 느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학기에도 장학금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런 힘겨웠던 상태에서 없는 힘을 어떻게 냈는지 이제 기억나지도 않는다.

지난 학기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착하고 재미있는 과 친구들, 과에서 유일한 외국인 대학원생으로 내가 미안함을 느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선생님들과 조교님들을 만났다. 애초에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처럼 정겨운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그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학기 중간에 공부할 힘을 모두 잃어버리고 유학을 포기했었을지도 모른다.

나에게 장학금(獎學金)이란 한자의 의미, 그야말로 ‘학업을 장려하는 돈’이다. 즉, 장학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버티고 설 수 있는 의지가 되며,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을 뒷받침해주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다사다난했던 시간이 끝나 다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금, 나는 대학원에서의 공부를 즐기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왠지 모를 확신이 내 마음 속에서 커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장려상  
말하는 대로

박 선 우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재학생 (학부생)

##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유재석은 개그맨 생활 초창기에 무려 10년 동안을 무명으로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노래를 작사했다. 그 당시 그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제발 저에게 단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그가 쓴 이 노랫말처럼, 앞으로 내가 무엇인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 같았다. 차라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버티지 않아도 되니까.

나에게 서울대학교 입학의 기쁨은 아주 찰나였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아버지는 회사를 퇴직하셨고, 그동안 우리 집의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 있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고혈압이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 어머니는 삼 남매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활과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하셨다.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대학



입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가기만 했다. 우리 가족이 반 지하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은 물이 역류하여 온 집안이 침수되기도 했다. 그날 내내 바닥에 흥건한 물을 퍼 나르고 다 젖어버린 책과 가구들을 옮겼다. 그러나 어디에도 나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없었다.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은 어떻게든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공부 했듯이 대학교 와서도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시절의 나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어느새 심적인 압박이 되어 나의 발목을 붙잡았다. 친구들은 하나 둘씩 진로를 결정하여 나갈 무렵에도 내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게 만 느껴졌고 나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이번 학기 성적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에 엄마에게 전화했다. 그러나 내가 대학교에서 받은 첫 장학금은 우리 가족의 빚을 갚는 데 들어갔다.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엄마의 말 한마디였다. “우리 막내딸 장학금까지도 엄마가 가져가서 미안해……” 그때 엄마는 내게 미안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철이 없던 나는 엄마가 수화기 너머 다 듣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갤 끄덕였지

내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당시 내게 자신감은 손가락 사이사이로 빠져 나가버리는 푸석한 모래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형애장학회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장학생으로 선정 되셨어요. 축하 드립니다.” 나는 얼떨떨했다. 교외장학재단 장학생 선정에 번번히 떨어지자 나는 마음을 거두고 더 이상 지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측하건대, 학과 조교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던 것 같다. 종종 과사에 들러 장학금 지원서를 내곤 하였는데, 그때 나의 사정을 알게 된 학과에서 나를 추천해 주셨던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일정 학점 이상만 유지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엄마는 너무나 좋아하셨다. 장학생 첫 모임 때 종로의 한 사무실에 찾아가 장학재단의 설립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오랜 시간 운수업에 종사하셨던 한 회장님의 기부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회장님 부부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항상 한 알의 숨어있는 모래처럼 살겠다’는

뜻의 그의 호 ‘일사(一沙)’처럼, 그는 기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한다.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에게 이미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전달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본인의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라고 유언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졸업할 때까지 나의 모든 학비부담을 털어 주신 것도 모자라 매 학기 별일 없냐며 다정하게 연락을 주시던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함은 헤아릴 길이 없다.

예기치 못한 선물은 그동안 막막함과 불안함에 익숙해 있던 나를 환기해주었다. 나는 교내 학과 사무실에서 근로장학생을 모집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원하였고 감사하게도 선정되었다. 학비를 지원받는 동시에 근로장학생으로 매달 생활비를 받게 되자, 나는 이전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다. 또한 학교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학과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되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마음 졸이며 여기저기 다닐 때보다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겼다. 게다가 친절하신 선생님들과 조교님들 덕분에 과사에서 일 하는 내내 행복했다.

불현듯 찾아온 마음의 여유를 통해 나는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도 잘 몰랐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계실 부모님의 모습이 아른거려 이내 마음을 접곤 했었다. 그러나 비교적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자 많은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이전에는 매 학기 전공 수업을 듣고 중간, 기말고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면 시간이 생기자 좀 더 욕심이 생겼다. 전공 커리큘럼을 따라가되, 흥미가 생기는 타과 수업들을 들어 보기도 하고 해외에서 열리는 세미나들에 참여해보기도 했다. 또한 지금껏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았다. 혼자 여행을 떠나 보기도 하고, 평소 참여해보고 싶었던 국제회의에 스태프로 일 해보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들은 좁았던 내 시야를 넓혀주었다. 그제서야 나는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도 무엇인가 ‘될 수 있단 걸 믿어보기로 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자서전에서 “Unconditional love is a means by which we enable and reach human potential.” 이라고 말한다. 조건 없는 사랑은 한 사람의 마음을 사랑과 감사함으로 채우는 동시에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장학금은 내게 있어 ‘unconditional love’이다. 기부자 선배님들과 장학재단은 내게 장학금이라는 혜택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떠한 재촉과 요구도 없이 그저 내가 스스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 줄 뿐이었다. 나는 그분들의 조건 없는 신뢰와 사랑이라는 황송한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은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어느새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사회에 첫걸음을 뗄 준비를 하고 있다. 쉽지는 않은 길이겠지만, 나도 언젠가 그분들처럼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오랜만에 “그대 믿는다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말하는 대로’의 노랫말을 다시 한 번 음미해본다.

장 려 상

# A Dream and a Family's Sacrifice

Inna Yushila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재학생 (석사과정)

## A Dream and a Family's Sacrifice

This is a story of a little girl who dreams, and her family's sacrifice...

In a small city in Indonesia, there was a seven-year-old little girl who lived with both of her parents, an older brother, and a younger sister. This little girl loved to read books; not because of the pictures or the interesting stories, instead, she loved reading books because of the new knowledge those books offer. Knowing the interest of her daughter, the little girl's mother would bring her to a bookstore every Sunday when she was not working. They went there not to buy a book, but only to read books that were available to read for free. They stayed for a few hours in the bookstore and went home without being able to finish the book. Still, it was already enough to make the little girl so happy.

There was this one time, the little found her mother's book about catfish culturing technique. Since her parents could not buy her any new book, the little girl just decided to read that book and brought it to school to read during the break

time. One of the teachers spotted the little girl reading the book, and she found it strange for a kid to read such book. She decided to tell the little girl's mother that this kind of reading is not suitable for a seven-year-old kid. The little girl's mother, who was working almost every day until night, of course, did not even realized that her daughter brought that kind of book to school. Her mother, while chuckling, told the little girl about the teacher's concern, and since then, she would try at least to buy the little girl a book every once a month, whenever she got her paycheck. The little girl was so thrilled of getting new books, not knowing that perhaps it was the sacrifice of her mother, seeing how low her salary was.

The little girl loved to read books related to the knowledge of the world, such as *What Einstein Didn't Know: Scientific Answers to Everyday Questions* and *365 Questions and Answers - Earth & Universe* which were about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in everyday life. From the later book, she found out that some places around the world have four seasons, with the beautiful white snow in winter. She cannot hold her curiosity so she asked her father.

"Dad, why don't we have snow here? I want to go to the other country and see it."

Her father, knowing that it might be difficult to send her traveling abroad to see snow, answered,

“If you want to see it, you need to get a scholarship to study abroad.”

“And how can I get a scholarship abroad, Dad?” her daughter asked him again.

“You should be smart and be able to speak English well!”

Since then, the little girl had determined that she would study hard and get a scholarship abroad.

## The Present

More than a decade has passed since the little girl throw that question to my dad. She has finally become a twenty-three-year-old me who finally stepped herself to study abroad in South Korea with the help of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KGSP). It was a sweet memory to remember the whole years I devoted to study hard and prepare to get a scholarship abroad, and also the whole six months I spent to register for KGSP scholarship and passed all of the steps, including administration stage, interview test, university selection, and the health examination. It was not as simple as being able to speak in English as what my father told me. Sometimes I chuckled



when I remember how naïve I was.

After becoming a KGSP Awardee, I made a website to share my experience of getting this scholarship. Through those articles I wrote on my website, I wish I could help those who are also dreaming of studying abroad. Many people commented on my website about what they need to prepare, and how long it takes to get the scholarship.

“Indeed, the preparation of the documents-including motivation letter, recommendation letter, and the other documents-takes no longer than 3 months to prepare. But actually, I began to prepare myself since a long time ago, as almost every scholarship abroad requires you to have good grades and also the ability to communicate in English. That’s why it is better to start preparing from now.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you need to prepare is your desire to get the scholarship itself, as that desire would be the fuel for you to keep on trying even when you are faced with difficult obstacles or get rejected many times. Just believe that when you want something, all the universe conspires in helping you to achieve it.” I answered, quoting from one of my favorite book, *The Alchemist* by Paulo Coelho.

Now, as I have been living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two years, I finally realized that my desire to get the

scholarship was not the only element that made me able to obtain this scholarship. My parents, my brother, and my sister, has been the biggest support for me by sacrificing themselves.

## The Sacrifice

The little girl was a high school student. She had so many assignments to do which required her to browse the internet and print the materials. Her family did not have an internet connection nor a printer, therefore, the little girl's mother would bring her to an internet café by her motorbike, while also bringing the youngest daughter. They would accompany her there until the little girl finished her assignments. While the little girl was working on her assignment inside the internet café, her mother and her sister were always waiting patiently outside and shivering in cold, until the little girl finished her assignment around midnight. Little did the little girl know about her mother's and sister's sacrifice for the little girl.

After the little girl graduated from senior high school, she got accepted in one of the best university in her country. All of her family celebrated that event, yet, her father was concerned about the tuition fee and the living cost of his

daughter to settle in another city. Her father, then, borrowed some money from his relatives to send his daughter to university. He also bought her a new pair of shoes as a gift, while he always bought himself secondhand shoes. And to send the little girl's living cost, he would stay at work until late night to get additional income. Little did the little girl know about her father's sacrifice for the little girl.

The little girl's older brother was not really close to her. He got compared a lot with his sister who jumped class twice. The little girl did not realize that it was such a difficult situation for her brother. Yet, her brother never complained and was always being proud of her sister's achievement. There was this one time the little girl got a funding to do a conference abroad in Brisbane. Her brother, being so proud of her sister, collected some money from his small clothing business, which at that time did not even have any employee, to buy the little girl a pretty red coat. She received it happily, not knowing that it was only one small sacrifice his brother made for her.

After several years, her mother told the little girl about her brother's sacrifice. Both the little girl and her brother attended the same English course when they were kids. But the little girl was the only one to continue studying English

for 4 years, as her brother said that it would be better to use his course fee for the little girl. The little girl cried when she heard that.

## Epilogue

This scholarship has resided in a very special part of my heart, as it triggers me to explore myself more, to change to a more positive soul, and to be able to realize my family's sacrifice. As an introverted little girl who only loved to read books, now the little girl is changed to be a more open person, to have more compassion to the other people, and to be a more supportive daughter and sister for her family.

The little girl does her best to spare some money from the scholarship for her parents' hospital fee, for her little sister to buy some undergraduate textbooks, and for her brother to expand his small business. Just like a normal girl in 20s, she also wants to spend her savings to buy herself a new phone or to travel to some places far away and enjoying life, but her ultimate enjoyment is to see her family lives sufficiently and being happy.

And that would be enough for her.



## Acknowledgements

I would like to thank the Korean Government and all of the Korean people for providing us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KGSP). With this essay, I would like the Korean people to know that this scholarship is able to change the lives of so many people, and even fulfills the wish of the younger me-the little girl.

Ps. I experienced the snow, and it was indeed so pretty ☺ I will not forget the excitement of me and my friends when we saw the first ever falling snow in our lives.

장 려 상

## 제2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이 현 수

선한 인재 장학금 기부자, SPC. 경영능력향상과정 2기

## 제2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 공모전

### 나에게 서울대학교란?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에게 서울대학교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학교였다. 대부분의 내 또래 사람들은 학력고사시험을 본 세대들로 학교 전체에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어렵게 입학하는 대단한 학교이고 나와는 상관 없는 곳이며, 너무나 동떨어진 세상이라고 생각한 곳 이었다. 게다가 나는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쯤에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그만두었다.(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가난한 학생이 운동을 했다.) 운동을 그만두고 짧은 시간동안 학과 공부를 하여 어렵게 대학에 입학한 나는 나와 함께 공부했던 같은 반 반장이자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여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다니는 친구를 보면서, 항상 나에게 서울대학교는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 서울대학교와의 인연

세월은 흘러 나에게도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행운이 찾아 왔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회사부도로 인해 실직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30대 가장인 나에게 먼저 학교가 교육

을 받아 새롭게 일어 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학교는 나와 우리 가족을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었다.

비록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은 아니었지만 서울대학교 총장님 명의로 발부되는 수료장과 함께 서울대학교 일원이라는 동문명부에 올라가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의 첫 인연을 맺게 되었다.

## 장학금 기부를 통해 얻게 된 가족의 행복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막상 현실의 생활에 쫓기며 살다보니 남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기도 바빴던 시기였다. 그때 우연히 학교에서 보내주신 메일을 통해 다시 학교와의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에도 소소하게 ‘한국 뇌성마비 복지회’와 같은 단체들에 소액후원을 하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 할 수 있는 장학금 지원방법이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쉽게 후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원제도와 기부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는 고액 기부 뿐만 아니라 소액 기부만으로도 내가 받았던 과거의 혜택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 주었다.

오늘까지 기부를 통해 4년 넘게 작은 정성을 표시 할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지금은 두 아들과 아내까지 좋은 취지에 동참하면서 가족 모두 매달 조금씩 꾸준히 경영대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학교에 기부와 후원을 하면서 나와 가족들의 삶도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었다. 좋은 취지의 기부를 아직 어리지만 두 아



들들도 나의 뜻에 찬성해서 매달 용돈에서 조금씩 미리 떼어내어,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좋은 경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가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재산을 물려 준 것 같은 뿌듯함이 있다.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기부한 내역과 생일 때 보내주시는 카드를 받는 날이면, 가족 모두 기부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 꽃을 피우는 행복도 받고 있다. 또한, 작년 봄쯤 우연한 기회에 온가족이 가족기부자로 선정되어 학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게 되었다.

‘서울대사람들’이라는 교내 발행 책자에 가족 4명의 글과 사진이 게재되었고 기부의 중요성과 실행성에 대하여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행한 책자를 통해서 가족의 화목과 기부의 즐거움을 많은 서울대학생과 동문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누가 아는가? 나중에 나의 두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영광을 누리고 나와 아내 그리고 아들이 낸 장학금의 미래수혜자가 되어,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만으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희망을 꿈꾸니 너무나 뿌듯하다.

## 아직 장학금 기부를 망설이는 선한 예비 기부자에게

한 명의 보통사람이 억대의 기부는 무척 힘들다. 그렇지만 나는 매월 일만원 정도를 꾸준히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안다면 다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일이다. 만 명이 십시일반 모으는 정성으로 조금은 발전되어 가는 나의 모교 서울대학

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부는 받는 사람보다 기부한 사람이 더 행복함을 느끼는 유일한 행위이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함께 할 많은 예비 기부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동참

하시길 권유하고 싶다. 내가 힘들었을 때 학교가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준 것도 어찌면 나보다 먼저 섰던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 기부했던 많은 선배들 덕분에 그 혜택을 내가 봤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평생 여력이 될 때까지 열심히 기부하고 주변사람들에게 홍보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길 기원해 본다.

‘무엇을 시작 할까 생각하는 그 시간이 내가 행동하는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말처럼 지금 당장 기부를 통한 행복에 동참하시라고 강하게 권유하고 싶다.



장 려 상

## 글로벌 '스누인'을 다짐하며

한 세 환

의과대 정형외과 재학생 (박사과정)

## 글로벌 ‘스누인’을 다짐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한세환 입니다. 2017년 3월 입학으로 서울대학교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처음 SNU 포털에 학생공지에서 이번 장학금 수기공모전이라는 공지를 보고 저는 맘속으로부터 이 공모전은 꼭 참가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감사한 맘이 더 앞섰고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어디에 말할 곳이 없었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께만 말했을 뿐입니다. 매번 장학금 신청이 당첨 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그 기쁨을 금치 못하였고 또한 저도 그 장학금을 받은 서울대학교에 고마운 마음으로 묵묵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솔직히 중국에서도 의학을 하려면 시간과 금전적으로 너무 투자가 많은 학업입니다. 친구들이 모두가 대학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할 때 저는 의학의 길에서 항상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했고 또한 그 시간은 길었습니다. 나이 30살 넘어서 더 발전한 의학을 배우려고 명문대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지원 하였을 때 부모님의 기쁨과 근심의 두 얼굴이 지금도 눈앞

에 훨씬 보입니다. 그 기쁨은 명문대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더 좋은 의학 더 발전된 의학연구를 하게 되어 기쁘시고 근심은 누구보다 잘 알고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손손 의학 가족인 부모님들은 저의 결정을 존중했고 또한 한사코 지지해 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 후 저는 장학금 지원받고 학업에 전신으로 열중할 수 있었고 또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저의 실험실 선생들의 지도하에 1년이라는 시간은 연구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는 초자에서 차츰차츰 열심히 배워서 그 사이에 제 인생에 첫 SCI논문 제1저자 한 편 공저자 논문 한편을 발표 했으며 현재도 제1저자 SCI논문 한편을 submission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적인 학술대회에도 많이 참석하였고 두 편의 논문으로 발표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생각해보면 그 근본은 저를 학업에 열중하게끔 해준 서울대학교 장학금이 든든한 기초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지원이 없었더라면 저에게는 큰 금액인 등록금이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의학은 다른 전업과는 달리 직접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장학금에 대하여서도 생각을 해봤고 이 장학금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마련하여 지원해주는지도 찾아봤습니다. 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장학금은 많은 기업의 사장님, 우리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들, 현재 서울대학교 많은 교수님들 등 많은 분들께서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박사과정이었어서 관악캠퍼스는 많이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월에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진행한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에 초대 받은 건 아니지만 그날 관악캠퍼스에 가서 장학금 수여식을 방청하였습니다. 또한 관악캠퍼스를 돌면서 장학금 기부자인 동곡 이용희 회장님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곳에서 장학금 기부 메시지가 적혀 있는 것을 읽다 이용희 회장님을 직접 만나 뵈는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마스크를 한 이용희 회장님을 알아보고 함께 사진 기념 촬영도 남겼고 또한 회장님한테 이렇게 장학금 기부를 해주어서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고마운 마음도 전하였습니다. 이용희 회장님은 오늘 아침 발전기금 수여식이 있어서 참가 중이라고 하였고 또한 부디 학업에 전념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따뜻한 말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장학금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전심 전력으로 학업에 열중하게끔 만들어 주신 서울대학교에 감사를 표합니다. 외국인한테도 이런 좋은 환경에서 더 발전한 지식을 배워주면서 장학금을 제공해주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은 그 어느때 보다는 진실된 맘으로 적었습니다. 주신 분은 모르지만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더 잘 되어서 서울대학교를 더 널리 알리고 훌륭한 ‘스누인’이 되겠습니다.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 (940동) 2층

Tel. 02-880-8004, 02-880-5790

Fax. 02-872-4149

E-mail. [snuf@snu.ac.kr](mailto:snuf@snu.ac.kr)

URL. [www.snu.or.kr](http://www.snu.or.kr)